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3파전 압축

전갑수·이강근·이상동 후보 확정
13일 대의원 투표 간접선거로 선출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가 3파전으로 압축됐다. 이번 선거는 전임 회장 중도사임에 따른 보궐선거로, 오는 13일 선출될 당선인은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이 된다. 임기는 2023년 2월까지다.

광주시체육회 회장 선거관리위원회가 3일 제2대 광주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접수를 마감한 결과 전갑수(61) 광주시배구협회장, 이강근(67) 광주시당구연맹회장, 이상동(58) 광주시북구 체육회장이 등록했다. 기호 추정결과 1번은 전갑수, 2번 이강근, 3번 이상동 후보 순으로 정해졌다.

전 후보는 배구 선수 출신으로 한국실업배구협회 부회장, 대한건기협회 부회장을 지냈으며 현재 대한장애인배구협회장, 법무부 법사랑위원, 광주시배구협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전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선수와 지도자, 기업인, 체육행정가, 사회공헌가로서 50년 가까이 광주체육발전에 봉사해온 '준비된 체육회장'"이라며 "체육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열정·봉사정신, 체육조직을 이끈 행정경험, 화합을 이뤄낼 수 있는 신뢰의 리더십을 자

산삼이 광주체육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으로 함께하는 구체육, 건강한 생활체육, 도약하는 전문체육, 꿈꾸는 학교체육, 변화하는 혁신체육 등 5대 핵심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이강근 후보는 광주시 생활체육배구연합회장을 지냈으며 대한장애인체육회 당구협회부회장, 광주시당구연맹 회장, 광주 너릿재 벚꽃 축제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시청 시민소통관실에서 출마기자회견을 열고 "전문·생활체육이 물리적으로 통합되었으나, 하나된 체육회가 되지 않았다"며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는 인사정책, 충분한 예산확보와 투명한 예산정책으로 비인기종목 등 소외된 종목이 없도록 함으로써 소통과 통합의 체육회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공약으로는 재정자립 전국 최고 수준 체육회, 학교체육 부활, 선순환 스포츠생태계 구축, 생활체육 종합계획 마련 등을 제시했다.

이상동 후보는 대한민국 승마연합회 부회장, 광주시 야구연합회장, 북구 배드민턴연합회장, 북구 사회단체 협의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북구체육회장을 맡고 있다.

그는 보도자료에서 "체육 현장과 체육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후보로서 위기의 광주시 체육회를 일으킬 자신이 있다"며 "체육인의



전갑수 후보 이강근 후보 이상동 후보

자존감을 높이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풍토를 마련하고 체육인들이 체육 현장에서 전문가로서 당당하게 서고, 체육인 사회 권위 및 신뢰 회복을 통한 체육인 정체성 회복을 위해 분골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약으로 광주시 전 체육인을 위해 3억원 보장 보험 제공, 체육인 권리 침해 사건 변호사비 전액 무료 지원, 효율적인 재정 운영 등을 제시했다.

대의원 투표를 통해 간접선거로 회장을 뽑는 체육회장선거는 오는 13일 시체육회관 2층 다목적 체육관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치러진다. 선거인단은 시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 대표와 구체육회장 59명, 초·중·고·대학·직장 육성팀 및 동호회 대표(대의원) 및 구체육회 정회원 종목단체 대표 가운데 추천으로 뽑힌 227명 등 모두 286명 선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양현종 선발 출격 6일 미네소타 원정서 MLB 데뷔 첫 승 노려



양현종(33·사진·텍사스 레인저스)이 드디어 꿈의 무대에서 선발 출격한다. 텍사스 구단은 6일 오전 8시 40분(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타깃필드에서 열리는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미네소타 트윈스와 원정경기에 선발 투수로 양현종을 예고했다.

양현종은 이날 경기에서 텍사스의 첫 번째 투수로 출격해 MLB 데뷔 첫 승을 노린다.

2021시즌 양현종의 선택은 도전이었다. 그는 지난 2월 텍사스와 '신분'에 따라 연봉이 달라지는 1년짜리 스플릿 계약을 하고 미국행을 결정했다.

기다림 끝에 기회가 찾아왔다. 기존 선발 투수 아리하라 고헤이는 최근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 4.1이닝 동안 11실점을 기록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는데, 중지에 굳은살이 생겨서 주사 치료를 받고 선발 로테이션에서 제외됐다.

텍사스는 아리하라의 공백을 양현종에게 맡기기로 했다. 양현종의 도전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6일 미네소타 전 결과에 따라 선발 등판 기회를 더 얻을 수도 있고 마이너리그로 강등될 수도 있다.

/연합뉴스

프로야구 휴식 ... KIA 화력 점화 나설까

T 타이거즈 전망대

한숨 고르는 KIA 타이거즈가 화력 점화에 나선다. 4일 프로야구가 쉬어간다.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 명단에 포함된 선수들이 3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으면서 KBO는 해당 선수들의 휴식 보장과 각 구단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4일 휴식을 선택했다.

KIA는 하루 휴식 뒤 5·6일 사직에서 롯데 자이언츠와 원정경기를 치른다. 이어 안방으로 돌아와 두산 베어스와 주말 3연전을 갖는다.

지난주 KIA는 안방에서 한화 이글스를 상대로 스피닝을 거두고도 승리를 올리는 데 실패했다. 공수에서 부진이 이어지면서 KT 원정경기에서 싹쓸이 3연패를 당했다.

개막과 함께 애를 태웠던 타선에 부상이 더해졌다. 27일 '캡틴' 나지완(염구리 통증)을 시작으로 류지현(허벅지 통증), 이창진(등 통증)이 나란히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최형우도 땅막 이상으로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100%의 전력

도쿄올림픽 예비 엔트리 선수들

코로나19 예방 접종

공정 경쟁 위해 4일 휴식

KIA, 롯데 원정·두산과 홈경기

으로도 부족한 화력 싸움에 부상이 겹치면서 KIA는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난세의 영웅'도 없었다. 지난주 주축 선수들의 부상으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지만 확실한 활약을 보여준 선수가 없었다.

이우성, 황윤호, 김태진, 김호영이 공격은 물론 수비에서도 아쉬운 모습을 노출하면서 KIA는 약팀의 모습을 보여줬다.

선발을 중심으로 마운드 틀이 잡혀가고 있는 게 그나마 위안이다.

임기영이 지난 4월 27일 6이닝 3실점으로 세 번째 등판 만에 릴리프 스타트를 기록했고, 2일에도 5.1이닝을 소화해주면서 선발진 이닝을 늘려줬다.

KBO 중간순위 (3일 현재)

순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삼성	26	16	0	10	0
2	KT	25	15	0	10	0.5
3	두산	25	13	0	12	2.5
3	LG	25	13	0	12	2.5
3	SSG	25	13	0	12	2.5
6	NC	25	12	0	13	3.5
6	KIA	25	12	0	13	3.5
8	한화	25	11	0	14	4.5
9	키움	26	11	0	15	5.0
10	롯데	25	10	0	15	5.5

김유신이 이번에도 5회를 넘지는 못했지만 맨틀, 브룩스, 이의리도 6이닝을 책임지면서 선발 역할을 해줬다.

선발진의 승운은 없었다. 6이닝 2피안타 1볼넷 무실점 10K쇼를 펼친 '루키' 이의리만 승리투수가 됐다.

브룩스는 6이닝 1실점의 호투에도 패전투수가 되는 등 야수진의 화력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터커가 지난 27일 한화전에서 시즌 첫 결승타를

기록하며 반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것 같았지만, 아직 지난 시즌의 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시즌 초반 가장 뜨거운 타격감을 과시했던 김선빈도 매서움이 떨어졌다. 터커와 김선빈은 수비에서도 실수를 이어가면서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KIA의 부족한 공격, 수비라도 완벽해야 한다. KIA는 올 시즌 11개로 최소 실책을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중 5개가 지난주 기록됐다. 보이지 않은 실책까지 더해 KIA는 허무하게 승기를 내주는 모습이었다. 선수비 후공격으로 차분하게 승부를 해야 한다.

한편 팀의 '넘버 1·2'가 새로운 한 주 기록에도 전한다. 타격 부진에도 올 시즌 KBO리그 전체 타자 중 가장 많은 고의 사구(5개)를 얻어낸 '만행' 최형우가 통산 9번째 900 4구(-7), 통산 10번째 1000 4사구(-11) 기록을 준비한다.

'넘버 2' 나주환은 앞으로 1경기에 더 나서는 KBO리그 통산 54번째 1500경기 출장 기록을 달성한다. 500타점(통산 100번째)에는 5개를 남겨두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두산과 주말 3연전 '패밀리 시리즈' 진행

KIA 타이거즈가 가정의 달을 맞아 두산과의 주말 3연전에서 '패밀리 시리즈'를 진행한다.

KIA는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챔피언스필드에서 진행되는 두산전에서 '패밀리 시리즈' 행사를 열고 가족 단위 관람객과 대학생, 어린이 팬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7일은 '대학생의 날'로 정했다. 이날 대학생은 30% 할인된 가격에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다. 대학생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수제쿠키를 증정한다.

전남대학교 댄스 동아리 '뉴에라'의 초청 공연과 함께 어쿠스틱 기타 동아리 '하이코드'의 애국가 연주 등이 그라운드에 펼쳐진다.

이날 시구와 시타는 지난 1월 뽀스니 교통사고 피해자를 구해 '의로운 광주광역시민상'을 받은 전남대학교 허윤기·김성민 학생이 맡는다.

8일에는 어버이날 행사가 진행된다.

KIA는 입장객 가운데 부모님 팬 508명(선착순)에게 카네이션을 선물한다. 선수단은 이날 모자에 '감사합니다'라고 쓰인 카네이션 모양의 어버이날 엠블럼 패치를 달고 그라운드에 오른다.

또 트로트 가수 김양이 공연자로 나서 흥을 돋울 예정이다. 이날 시구와 시타는 박진태 선수 가족이 맡는다.

9일에는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가 준비됐다.

사생대회, 애니메이션 방영이 이뤄지고 임기영의 랜선 사인회도 펼쳐진다. 이날 입장하는 어린이 팬에게 해태제과 과자 '흠뻑' 5000개도 선물할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손흥민 2시즌 연속 '10-10 클럽' 가입

(골 - 도움)

EPL 셰필드전 1골 1도움

토트넘 대승 이끌고 대기록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 홋스퍼의 손흥민(29)이 1골 1도움으로 풍성한 기록을 쓰며 소속팀의 대승에 앞장섰다.

손흥민은 3일(이하 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셰필드 유나이티드와의 2020-2021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34라운드 홈 경기에서 후반 16분 팀의 두 번째 골을 돕고 후반 32분 쐐기골까지 넣어 토트넘의 4-0 승리에 한몫했다.

손흥민은 이날 골로 리그 16호 골을 기록했다. 리그컵(카라바오컵) 1골,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4골(에션 1골 포함)까지 포함해 올 시즌 총 21골을 넣어 2016-2017시즌의 개인 한 시즌 공식전 최다 21골 타이 기록을 썼다.

손흥민은 또 이날 도움으로 시즌 도움 개수를 10개로 늘리며 토트넘 구단 최초로 2시즌 연속 10골-10도움 클럽에 가입했다.

토트넘에서 10골-10도움을 올린 선수는 위르겐 클린스만(20골 10도움·1994-1995시즌), 에마누엘 아데바요르(17골 11도움·2011-2012시즌), 크리스티안 에릭센(10골 10도움·2017-2018시즌)과 지난 시즌의 손흥민(11골 10도움), 올 시즌의 해리 케인(21골 13도움)뿐이다.

지난 26일 맨체스터 시티와의 리그컵 결승전 패배의 아픔을 씻고 리그 3연승을 기록한 토트넘은 5위(승점 56·16승 8무 10패)로 올라섰다.

종료까지 4경기를 남겨놓은 가운데 다음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진출 마지노선인 4위 첼시(승점 61)와 격차를 승점 5점으로 좁혔다.



손흥민(맨 오른쪽)이 3일 영국 런던 토트넘 홋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셰필드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슛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토트넘은 리그 최하위 팀인 셰필드를 상대로 손흥민과 개러 베일, 케인, 델리 알리의 공격 '4각 팬데'를 가동했다.

베일이 토트넘 이적 뒤 첫 헤트트릭을 작성하며 토트넘을 대승으로 이끌었다.

베일은 전반 36분 세르주 오리에가 후방에서 띄워준 침투 패스를 골 지어 오른쪽에서 방향만 바꾸는 슈팅으로 마무리해 선제골을 뽑았다.

후반 16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베일이 단독 드리블 뒤 골키퍼와 일대일 상황에서 침착하게 왼발로

슈팅해 2-0을 만들었다. 앞서 손흥민이 중원 오른쪽에서 상대 태클을 이겨내고 베일에게 패스를 건네 올 시즌 리그 10번째 도움을 올렸다.

/연합뉴스